

『高等國語讀本』과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에 나타난 일한 양국어 문법 항목의 대응 양상 및 특성

유수연*

〈 Abstract 〉

A study on the corresponding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grammatical features in “Godeung Gugeo Dokbon” and “Godeung Joseoneo Geub Hanmundokbon”

This study examines the special features and (dis)similarities of grammar item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y comparing a Korean language textbook, “Godeung Joseoneo Dokbon ‘Advanced Korean Readers’” (1913; 1924), and a ‘national language’ textbook, “Godeung Gugeo Dokbon ‘Advanced National Language Readers’”(1913; 1924), which were us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is little change observed in grammar items between the 1st and the 3rd education decrees in Japanese. In contrast, grammatical forms became diverse during the 3rd education decree period in the case of Korean. For stylistic, the ‘da’ form appeared in the 1st educational rule, and was used frequently in the 3rd, and the formal style ‘sumnida’ also appeared during the 3rd educational rule. In the case of negation, the change of Korean’s negative expression from ‘leading’ negation to ‘trailing’ negation, may have been influenced by the translation of Japanese that had the ‘trailing’ negation only. In addition, the double negation ‘ji anichi moshada’ was also influenced by Japanese. As a result, the fact that such changes appeared in materials translated from Japanese to Korean shows that Korean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had a significant relevance to Japanese.

Field: Syntax

Keywords: Japanese colonial era, Godeung gugeo dokbon, Godeung joseoneo dokbon, Corresponding aspect, Grammatical features

1. 머리말

본고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일본어교과서인 『高等國語讀本』과 조선어교과서인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의 대응 양상을 조선교육령별로 분석하여 20세기 초 교과서에 나타나는 일한 양국어의 특성과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일본어는 1874년 개항 이후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1891년 관립일어학당의 설립,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필수 과목으로 선정, 1911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의 국어로서의 지위 획득 등 거의 40년 동안 조선어보다 더 큰 파급력과 영향력을 지닌 언어였다. 이 공신력은 당시의 조선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¹⁾ 최근 일한 양국의 언어학자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한 양

* 전남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1) 송민(1979)는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직접화법의 간접화법화, 단문의 복문화, 서술구

국어의 특성에 대하여 활발히 살펴보고 있다. 고경민(2011), 김윤주(2011), 박기영(2016), 이강민(2006, 2015), 이준환(2013), 허재영(2007, 2014)²⁾ 등은 1800년대 후반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조선어와 일본어 학습서를 대상으로 하여, 당시의 교재 연구와 교수법, 개별 학습서의 서지정보와 내용의 구성, 한자나 어휘 연구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1890년대에서 1910년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서의 구성 및 체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외에 일제강점기의 자료라 하더라도 교과서에 나타나는 식민지 언어 정책에 중심을 둔 연구가 대부분으로, 통사론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 중 임상석(2014a)(2014b)³⁾ 등은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최초의 조선어 교과서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1913)의 조선어문이 모두 일본어의 번역물이며 특히 당시 지식인들의 일본어를 선정하여 번역함으로써 고급일본어를 한국어의 모범으로 삼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들 자료가 일한 양국어의 상관성을 밝히는 데에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어(일본어) 교과서류의 글을 원문으로 하는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의 글을 대상으로 하여 유수연(2019)에서 지면상 다루지 못하였던 일한 양국어의 문법 항목의 특성 및 상관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⁴⁾ 조선총독부발간 교과서는 일제가 일본어 보급 정책에 따라 조선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가장 모범적인 공용어로서의 일본어를 담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을 번역한 한국어는 당시 조선어의 특성은 물론 일본어와의 관련성까지도 고찰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제강점기 국어교과서와 조선어교과서의 문법 항목의 분석으로 20세기 초 교과서에 나타나는 일한 양국어의 상호 관련성을 살필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2. 선행연구

일제강점기 『고등국어독본』과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의 언어학적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 중 언어학적 관점에서 기술한 연구를 몇 가지 소개하여 본고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⁵⁾

임상석(2011)⁶⁾은 조선총독부 제1차 교육령기의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1919), 제3차 교육령 기의 『신편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1924), 제4차 교육령기의 『고등교육조선어급한문독본』(1932)의 문체와 번역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신편독본』에서 대화체, 서간체, 고어체 그리고 '다'체로 종결되는 새로운 문체가 두루

의 수식구화, 자동사의 피동화 등이 개화기 이후 일본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밝히고 있다. 이외에 이오덕(2009), 정광(1995), 윤호숙(2002) 등에서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나타나는 일한 양국어의 관련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2) 고경민(2011)pp.25-35, 김윤주(2011)pp.137-166, 박기영(2016)pp.121-154, 이강민(2006) pp.65-80, 이강민(2015)pp.51-72, 이준환(2013)pp.81-108, 허재영(2007)pp.293-316, 허재영(2010)pp.1-388, 허재영(2014)pp.61-84
- 3) 임상석(2014a) pp.33-52 임상석(2014b) pp.107-130
- 4) 유수연(2019)에서는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와 『高等國語讀本』의 대응 양상 중 기사의 내용과 조사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5) 유수연(2019)에서 기술한 김혜련(2009), 임상석(2010,2014a), 주미선(2017) 등은 생략한다.
- 6) 임상석(2011) pp.185-208

섞여서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어와 한문 전적(典籍)의 번역/번안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일본의 언문일치체를 조선어에 이식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추정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등국어독본』의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으로의 번역과정에서 일본의 의도적 생략과 수정이 나타나는데 이는 조선의 민족적 감정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고등교육조선어급한문독본』에 실린 당대 조선 작가들의 저술은 이 시기에 들어, 일본이 조선어가 번역이 아닌 조선인의 창작과 저술의 수단임을 인정한 결과라 하였다.

임상석(2014b)⁷⁾은 개화기 이후 조선의 문자의 교체 즉 ‘한문-국한문-한글’로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 한국 고전의 번역, 중국 문헌의 번역, 일본의 혼용문, 이 세 요소의 상호 영향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 결과 일제식 민통치가 강화되고 일제의 근대교육이 자리 잡으면서 중국의 문헌보다는 일본의 문헌이 더 강력한 참조점이 되었으며, 1894년 이후 한자 위주의 국한문 혼용이었던 조선어는 19세기 말 유길준이나 이능화에 의해 국문으로의 변화가 나타나, 1910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어와의 공통 요소였던 한자가 다시 조선어에 들어오게 되어 일제의 규범에 따른 한자의 혼용과 작문의 방식이 조선어에 유입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총독부 발간 최초의 조선어 교과서인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1913)이라 하였다.

박화리(2014)⁸⁾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전개된 국어 정책의 전체상을 조명하는 일환으로 중등국어교육의 실제 운용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교육령별 국어교과서의 서문 등에서 밝힌 교과서의 편수 방침을 토대로 교과서의 문체나 가나 표기가 구어체에서 문어체로 변화하였고, 역사적 가나표기법이 권장되었으나 한자음의 경우 표음적 가나표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근고문과 중고문은 국문혼용으로 작성되었으나 단 『여자고등국어독본』의 경우에는 현대문만을 다루었다 하였다. 또한 교수법에 있어서 초등교육에서는 직접교수법을 사용한 반면, 중등학교에서는 처음부터 음성중심의 교수법이 아닌 문자 중심의 내지형 국어교수법⁹⁾이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유수연(2019)¹⁰⁾은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의 글 중 원문이 국어독본류인 경우를 중심으로 양국어 조사의 대응 양상과 특성 그리고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일본어의 ‘이유, 수단, 근거’의 의미를 갖는 ‘*に*よつて’가 『고등국어독본』(1913)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신편고등국어독본』(1924)에 들어 ‘*に*依(よ)りて’로 정리되며, 반면에 복합격조사는 다양화되었고 사용빈도에도 증가가 보인다 하였다. 또한 한국어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 일본어 ‘*に*依りて’의 직역인 ‘에 의하여’가 다용되었으며, 복합격조사에 사용된 조사 ‘에’도 일본어의 직역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반면 일본어와는 다른 당시 조선의 국한문혼용체의 특성으로 조사의 다용, 1음절 한자어를 동반한 복합격조사의 등장과 다용 등이 나타난다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일제강점기 시 교과서의 문체나 표기의 양상, 교수법이나 조사 등에 관하여 양국어 교과서의 특성과 변천사를 규명하고 있어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사론적 관점에서의 고찰은 상당히 미비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어문의 번역물이며, 초등교육자료보다 심도 있는 내용과 문법을 다루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등교육기관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20세기 초 일한 양국어의 문법 항목의 특성과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7) 임상석(2014b) pp.107-130

8) 박화리(2014) pp.127-167

9) 박화리(2014:158)은 당시 국어, 국자문제로 끊임없이 충돌이 오가던 内地(일본)의 국어학계의 상황은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맞물려 독해 중심, 번역주의 교수에 의존하는 문자를 중시하는 교수법이 중요시되었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 교수법이 역설적으로 주장되었다고 하였다.

10) 유수연(2019) pp.69-83

3. 본고의 분석 자료

본고는 일제강점기 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중등교육기관의 조선어교과서인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의 글 중 원문이 일본어교과서인 국어독본 류에서 온 것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선교육령별 시기는 제1차와 제3차기를 대상으로 하였다.¹¹⁾ 제1차의 경우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1913)으로 총4권이 발행되었으며 제3차의 경우 『新編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1924)이라는 이름으로 총5권이 발행되었다.¹²⁾ 이 중 원문이 일본어문인 경우는 총 35글(기사)(제1차: 18기사, 제3차: 17기사)이나 본고에서는 우선 출전이 교과서 류인 17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행해보고자 한다.¹³⁾ 이들 17기사의 서지 정보는 유수연(2019:73)을 그대로 사용한다.¹⁴⁾

그럼 다음 장에서 이들 기사를 중심으로 원문인 일본어와 번역문인 한국어의 문법 항목의 대응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4. 『고등국어독본』과 『고등조선어독본』의 대응 양상 및 상관성

4.1 교육령별 『고등국어독본』과 『고등조선어독본』의 문법 항목의 형태적 특성

본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등조선어독본』의 글 중 원문이 국어독본 류의 글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등조선어독본』에는 원문이 일본어가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즉 『고등조선어독본』과 『고등국어독본』의 글들 중에는 각각의 자료에만 실린 글(기사)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일한 양국어 교과서의 문법 항목의 형태를 비대역글과 대역글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비대역글의 형태와 대역글의 형태를 합하면 양국어 교과서의 형태적 특성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이 같은 전체적 개관은 대역글만을 다룬 연구에서 간과하기 쉬운 당시 국어의 전반적인 특성을 개관하게 할 것이며, 특히 대역글에서만 등장하는 형태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비대역글과의 영향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게 할 것이다. 비대역글에서 나타나는

11)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은 크게는 4차로 나눌 수 있으나(김순전(2010), 박화리(2014) 등), 크고 작은 교육령을 모두 포함한다면 총 10차에 걸쳐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박봉배 1985, 강진호·허재영 2010 등). 본고는 추후 각 교육령별 국어교과서와 조선어교과서가 교육령의 개정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바, 교육령을 10차로 나눈 강진호·허재영(2010)의 분류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우선 구교육령과 신교육령으로 불릴 정도로 교과서 개정의 정도가 컸던 제1차(1911)와 제3차(1922)교육령기를 대상으로 분석을 행해 보고자 한다.

12) 국어독본의 경우는 제1차기에 『고등국어독본』, 제3차기에 『신편고등국어독본』으로 발행되었다. 이하 본고에서는 『고등국어독본』은 『고등국어독본』으로, 『신편고등국어독본』은 『신편국어독본』으로 칭하고,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은 『고등조선어독본』으로, 『신편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은 『신편조선어독본』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13) 일본어 원문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입수의 어려움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교과서 류의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어 기사의 일본어 원문은 『實業學校國語讀本』(1918), 『改修高等國語讀本』(1921), 『新編高等國語讀本』(1924) 등 여러 자료에서 등장하나, 본문에서는 편의상 『신편조선어독본』의 출처를 『신편국어독본』로 명기하기로 한다. 단 예문에서는 출처를 원문대로 표기한다.

14) 유수연(2019) p.73 참조

문법 항목의 형태는 제1차와 제3차기의 자료 중 권 1,2,3을 대상으로 하였다.¹⁵⁾

먼저 『고등국어독본』에서 나타나는 문법 항목¹⁶⁾의 형태를 글의 종류별, 교육령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조선어독본(조선어)의 책명, 권명, 과명, 페이지 수		조선어독본의 출처인 국어독본(일본어)의 책명, 권명, 과명, 페이지 수		국어독본의 출처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大正2, 1913) 권2 (大正3, 1914)	권1 40과 養雞日記 pp.50-52	高等國語讀本 (大正 2, 1913)	권1 38과 養雞日記 pp.140-142	新訂日本實業讀本
	권1 50과 南朝鮮米의由來 pp.61-63		권2 3과 南朝鮮米の由來 pp.10-12	朝鮮總督府 農商工部 調査書
	권1 67과 棉 pp.84-86		권2 4과 棉 pp.13-15	무표기
	권2 76과 木을緣히아魚를求む pp.109-112		권4 21과 木によつて魚を求む pp.87-90	齊藤山林課長 講演
	권3 4과 今上天皇陛下 pp.4-9		권5 1과 今上天皇陛下 pp.1-6	東久世通禧-聖德餘聞
	권3 17과 朝鮮에在る勸農機關 pp.27-31		권5 13과 朝鮮=於ケル勸農ノ機關 pp.49-57	무표기
	권3 43과 禊 pp.82-85		권5 15과 禊 pp.58-60	무표기
권4 6과 産業組合 pp.14-20	권7 15과 産業組合 pp.71-77	무표기		
新編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大正 13, 1924)	권3 3과 石炭의이야기 pp.12-16	實業學校國語讀本(大正7, 1918)	권2 25과 石炭物語 pp.88-91	正訂 中學國語讀本 三土忠造
	권3 4과 鄭夢周 pp.16-24	新編高等國語讀本(大正13, 1924)	권4 32과 鄭夢周 pp.167-174	무표기
	권3 7과 常識의修養 pp.32-38	實業學校國語讀本	권3 46과 常識의修養 pp.180-185	무표기
	권3 10과 經學院의釋奠 pp.42-46	改修高等國語讀本(大正10, 1921)	권5 21과 經學院ノ釋奠 pp.87-93	무표기
	권4 3과 朝鮮의 繪畫(1)(2) pp.12-24	改修高等國語讀本	권10 16과 朝鮮의繪畫pp.109-119	李王家博物館所藏 品「寫眞帖」
	권4 7과 休暇의 利用 pp.43-47	實業學校國語讀本	권3 21과 休暇의利用 pp.74-77	留岡幸助 「社會と人道」
	권4 8과 朝鮮의 工業 pp.47-55	新編高等國語讀本	권8 13과 朝鮮의商工業(2) pp.50-56	人見書記官講演及ヒ最近朝鮮事情要覽
	권4 9과 新聞紙 pp.55-58	新編高等國語讀本	권3 14과 新聞紙 pp.76-80	무표기
	권6 14과 朴泰星 6-14 pp.64-68	新編高等國語讀本	권6 14과 朴泰星 pp.73-75	熙朝軼事

15) 『고등국어독본』과 『고등조선어독본』의 모든 자료의 분석은 별고를 통해 자세히 피력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언어별 그리고 교육령별로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권3까지만을 우선 다루고자 한다.

16) 문법 항목은 문체(종결어미), 접속사, 조사, 부사, 가능표현, 경어 등 여러 항목이 있다. 이 중 본고에서는 많은 변화를 보여준 문체(종결어미), 수동, 상, 부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2〉 『고등국어독본』의 교육령별 문법 항목의 형태

교육령별 문법항목	비대역글		대역글	
	제1차	제3차	제1차	제3차
문체	たり,である,た,です,ます	たり,である,です,ます,た	たり,である,た,です,ます	たり,である,ます,で御座います
수동	らる,られる	らる,られる	らる,られる	らる,られる
상	てある,てきる,て居る,てお(を)ります	てある,てキル,てゐる,て居る,ております	てある,て居る,てゐる	て居る,て居ります,てキル
부정	ず,ない 이중부정: ねばならぬ。	ず,ない 이중부정: なければならぬ,せねばならぬ,せざるはなく,べからざるはなく,ざるべからず,ざるを得なかった	ず,なし 이중부정: ねばならぬ,ざるべからず,べからざるなり	ず,なし 이중부정: せざるを得ず,なしとせじ,ざるなく,ざるべからず

일본어의 경우 글의 종류별, 교육령별에 따른 변화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일본어가 1913년 자료에서 거의 안정화된 양상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단 제3차기에 부정의 경우 이중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문체에서 정중형이 등장한다. 상의 경우는 형태에 따른 시기별 의미와 빈도에 차이가 나타나 이들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고등조선어독본』에서 나타나는 문법 항목의 형태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고등조선어독본』의 교육령별 문법 항목의 형태

교육령별 문법항목	비대역글		대역글	
	제1차	제3차	제1차	제3차
종결어미	로다,노라,이오, 니라,소이다,하더라	이오,니라(지라,이라),도다,이다,되었소,	로다,이시라,니라,하도다,이다,엿다	니라,하다,이다,습니다, 시오,시다
수동	되다수동,어휘수동	되다(게되다)수동, 이중수동,어휘수동, 지다수동,접미사수동	되다수동,어휘수동	되다수동,어휘수동
상	-아있다	-어있다, -고있다	-며있다	-어있다, -고있다
부정	-치아니하다, -치못하다,無하다, -無多하다	-치아니하다, -치(만)못하다, 아니다,없다,不를포함한 명사+하다 이중부정:-아니치 못할지라, 치아니	아니하다,-하지아니하다, 이중부정:-지못할지니라, 하지야하다,可하다 등	-치아니하다,-치못하다, 아니다,不를포함한 명사+하다 이중부정:-지아닌치 못하다,不無하도다, 하지야하다

		하면 불가하니라, 햐야햐다		
--	--	-------------------	--	--

한국어의 경우 위 <표3>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일본어와는 달리 제3차에 들어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종결어미에 있어 ‘이다, 습니다’ 등이 등장하며, 수동의 경우 형태가 다양해졌다. 상의 경우 제1차에는 ‘-아있다’로의 대응도 있으나 대부분 현재시제로 나타나며 제3차기에 들어 진행의 ‘-고있다’가 등장한다. 부정의 경우도 제3차기에 본동사로 사용되는 ‘아니다’나 다양한 이중부정형이 등장한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이 같이 제3차에 새로이 등장한 형태들이 대역글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에 새로이 등장한 표현이 일본어와 같은 외국어의 번역에 의하여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대역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중심으로 일한 양국어의 대응 양상과 이들의 상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4.2 『고등국어독본』과 『고등조선어독본』의 대응 양상

4.2.1 문체

『고등국어독본』은 ‘たり,である,です,ます’체가 사용되었으며 『고등조선어독본』은 대부분 ‘니라, 로다’등의 고어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등조선어독본』의 경우 비대역글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종결어미가 대역글에서 등장하는데, 제1차기에 ‘이다’체, 제3기에 ‘습니다, 합니다’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종결어미가 대역글에서 등장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일본어의 번역과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일본어의 번역에 사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종결어미가 그 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정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어 ‘である’체는 제1차기에는 예(2)와 같이 고어체로의 대응되나, 제3차기에는 예(3)과 같이 ‘다’체로 대응되고 있어 번역의 양상에 변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제3차에 비대역글에서 등장하는 과거시제 ‘앗/엇다’체가 예(4)와 같이 제1차기 대역글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음도 이 같은 본고의 추론을 뒷받침한다.

(1) 今まで氣がつか¹⁷なかつたが、不思議な事もあるものだ。(고등국어독본 권1:142)

至今것注意아니햐얏더니異常한일도있다.(고등조선어독본 권1:51)

(2) それで今日では「木によって魚を救うむ」といつてもよいやうになつて來たのは、随分おもしろいことである。(고등국어독본 권4:88)¹⁷⁾

然흙으로今日에는實際로「木을緣햐야魚를求한다」云햐야도可햐기에至흙은、眞箇滋味가有¹⁸는事¹⁹이다.(고등조선어독본 권2:89)

(3) 公子ノ道即チ儒教ガ東洋道德ノ根本ヲ成シ、文化ノ進運ニ 貢獻シテキル事ハ偉大デア²⁰ル。(개수고등국어독본 권5:87)

公子의道가東洋道德의根本이되여、文化의進運에貢獻한事는實로偉大하다.

(신편조선어독본 권 3:3)

17) 예의 오른쪽에 (출처 권명:페이지수)를 기입하였다.

- (4) 降らずに晴れた朝の庭に、(고등국어독본 권1:140)
비가아니오고개였다. 아침마당에서(고등조선어독본 권1:51)

4.2.2 수동

『고등국어독본』의 경우 두 시기 모두 ‘らる, られる’형태가 사용되고 있으며 『고등조선어독본』의 경우도 ‘되다 수동, 어휘적 수동’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그 사용 빈도에서 교육령 별 차이가 나타난다. 어휘적 수동의 경우 제1차기에는 ‘受하다, 當하다, 得하다’등이 사용되었으나 각각 1 예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제3차기에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예(6)와 같이 다양한 명사와 함께 사용되었고 일본어의 어휘적 수동은 물론 문법적 수동의 대응어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5) 江中の釋魚と卵は、元來砂石によつて保護されるものであるが、大水が出ると、
(고등국어독본 권4:88)
江中の釋魚와卵은元來砂石에依히야保護를得히는者인大水が出ると
(고등조선어독본권2:110)

- (6) さあ、上から壓される、下から蒸される、その苦しさは、とても言葉に言へるやうな
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실업학교국어독본 권2:)
압다, 上편에서는무거운土石이壓하며, 下편에서는甚히蒸함을當하는데, 그苦痛은到底
形言할수업섯스니다.(신편조선어독본 권3)

이 같은 어휘적 수동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중세한국어의 전형적인 수동으로 간주되는 접미사 수동의 감소를 뜻한다. 실제 대역자료에서 접미사 수동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 수동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되다 수동’과 ‘어휘적 수동’이 그 역할을 대부분 담당하였음을 보여준다. 어휘적 수동에 사용되는 전접명사는 원문인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4.2.3 상

『고등국어독본』의 경우 ‘て居る, てをる(ておる, ております), てきる, てある, てある’¹⁸⁾의 형태가 등장하는데, 형태별 각각의 의미를 보인다. ‘てある, てきる’는 상태, ‘ております’는 진행, ‘て居る’는 상태와 진행, ‘てある’는 진행, 상태, 습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고등조선어독본』에서는 아래의 예(7)(8)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ている, てある’앞의 본동사(현재시제)나 다른 동사로 대응되고 있으며, 진행을 나타내는 경우는 예(9)와 같이 ‘머있다’로 나타난다. 그러다 제3차 『신편조선어독본』에 들어 ‘아/어, 고 있다’ 형태를 보인다.

18) 윤재숙(2007:69-72)은 ‘ある, をる’에 대하여 『구어법별기』에서는 ‘文語のラ行変格活用の‘あり, おり’の終止形を、口語でわ、全国、残らず、ある居ると云って居る。そこで、未来の形のあろう、居ろうを加へて、五段活用とした。’로 기술되어 있다고 하면서 실제 1887년 『심상소학독본』(문부성 편집)에서는 ‘을’을 사용하였고 국정1기에서는 ‘ある, おる’이 용법이 많으나 사람에게 사용하는 ‘ある’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정2기(1910)가 되면서 국정1기와 같은 용법은 사라지고 ‘을’도 ‘을리마’로 사용되고 있으며 ‘ある’를 대신하여 사용되었고, ‘ある’도 ‘あります’형으로 통일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시기의 변화에 따라 ‘ある’는 사람을 의미하는 용법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을’가 ‘오’ 그 후 ‘おります’로 변화하면서 ‘ある’의 의미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 (7) 潮の濁るのを嫌つて、他に避けるといふのは、能く人の知って居る事である
(고등국어독본 권4:89)
潮水の濁음을厭하야他處에避혼다云흐은世人의知흔논바이어니와,
(고등조선어독본 권2:110)
- (8) 大變難の發育がよく、名古屋コーチンをまた一番ひ買ったと書いてある。
(고등국어독본 권1:142)
병아리가 大緞히잘자라고名古屋‘고진’한雙웁도삿다고흐얏네。(고등조선어독본 권1:53)
- (9) 朝餌をまいてみると、(고등국어독본 권1:142)
아침에모이를주며잇노라니,((고등국어독본 권1:52)

한국어에 있어서 ‘고 있다’가 1920년대에 보편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래의 예(10)(11)과 같이 동일한 동사의 대응어에 두 형태 즉 단일동사로 대응된 경우와 ‘고 있다’로 대응된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 (10) 世界何處の都俯へでも行って御覽なさい。私供が盛んに働いて居る所は、最も豊裕な都俯で御覽なさい(실업학교국어독본 권2:89)
이世界어느곳을勿論하고,都會라稱하는것에가서보십시오。우리들이旺盛히勞働하는 곳은、가장豊裕한都會을시다。(신편조선어독본 권3:13)
- (11) 然るに又私供が汗水垂らして働いて居る所は煤や煙で細くて困ると言ふ人もありますが、(실업학교국어독본 권2:89)
우리들이뺨을흘니면서勞働하고잇는곳에오면、煤煙으로하야못견디겠다者도잇스나,
(신편조선어독본 권3:13)

정길남(2010:11-12)¹⁹⁾은 개화기 국어교과서에서의 선어말어미 ‘엇’은 매우 생산적으로, 종래의 단순한 과거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 엄격한 시제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동작의 상을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느’도 시제라기보다 상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현재 계속 되고 있는 동작을 드러내고 있다 하였다. 본고의 제1차기 한국어의 예들이 대부분 ‘느’ 현재시제로 대응되고 있음도 이들의 연속선상에서 설명 가능하다. 그러다 제3차기에 들어 ‘고 있다’가 등장하는 점은 외국어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유수연(2018:70)²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서에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잇’은 1920년대 자료에서 등장하며, 일본어 ‘てゐる’의 대응어로 설명되어 있고 특히 ‘て’와 ‘ある’로 나누어 일본어를 그대로 직역한 ‘고’와 ‘잇’으로 설명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고 잇’이 일본어의 직역에 의한 표현으로 추정하였다.

19) 정길남(2010) pp.11-12

20) 유수연(2018) p.70

해 보기로 한다.

4.3 국어교과서와 조선어교과서의 대응 양상에서 나타난 일한 양국어의 상관성

4.3.1 문체

한국어의 문체 변천사 중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고찰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기존 문체의 소멸과 새로운 문체의 생성 그리고 이들이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국의 개화기 문체는 민현식(1994:132)²⁴⁾에 따르면 문체 실험기(1884-1894), 문체 경쟁기(1894-1904), 현토체 정착기(1904-1910)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덧붙여 개화기 국한문체는 福沢諭吉와 같은 정한파의 격려 위에 일본의 현토식 일한문체를 모방한 知日 유학세대들이 인공적으로 제시한 실험적 문체로²⁵⁾ 통감부 시기(1904)에 정착되었다 하였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특히 '다'체의 생성 및 빈도의 증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민현식(1994:115)²⁶⁾는 한국어의 '는'다체나 '앗/엇'다체와 같은 '다'체는 이미 16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근대에도 보여 구어상으로는 활발했지만 문어상으로는 미약하다가, 개화기에 와서 신소설 등에서 본격적으로 '라'체를 '다'체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임상석(2011:191)²⁷⁾은 '다'체는 1910년대의 문체적 혼란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신편조선어독본』에서는 『개벽』과 『창조』 등으로 대변되는 1920년대 조선의 새로운 글쓰기에 보조를 맞추어 '이오, 소' 등의 대화체 내지 서간체, '나라, 도다' 등의 고어체 그리고 '다'로 종결되는 새로운 문체가 두루 섞였으며, 이런 문체가 일본어의 번역/번안을 통해 나타난 것은 특히 유의할 지점이라 하였다.

김미형(1998:138)²⁸⁾은 신문 자료에서 등장하는 종결어미 '다'체에 대하여, 1896년 제국신문에 나타나는 등 1890년대에 짝이 트고, 1920년대에 이행이 시작되어 1930년대 끝에 가서야 완성되는 과정을 보인다 하여, 1920년대 초반에서는 일반적인 종결어미로 '더라, 이라'형이 쓰이고 간혹 '다'형이 나타나는 정도라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한국어의 '다'체는 16세기부터 등장하였으나 개화기를 거치면서 빈도의 증가를 보이고 1930년대에 들어 교과서, 신문 등 여러 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체로 정착하였음을 보여준다. 본고의 분석 자료인 조선총독부발간 교과서도 이 설을 방증한다. 더 나아가 전술한 예(1)과 같이 '다'체는 제1차기에 대역글에서 소수 등장하기 시작하여 제3차기에 이르러 다수 사용되는 문체가 되었으며, 또한 아래의 예(16)과 같이 정중형 '습니다'의 경우도 제3차기의 대역글에서 등장하고 있어 시기별 문체의 생성, 변화에 일본어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²⁹⁾

24) 민현식(1994) p.132

25) 임상석(2019:200)에서도 개화기 국한문체는 福沢諭吉에서 비롯된 일본어 언문일치체를 번역을 통해 조선어에 이식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26) 민현식(1994) p.115

27) 임상석(2011) p.191

28) 김미형(1998) p.138

29) 유수연(2018:69)에서도 일제강점기 조선어학습서인 『조선어법급회화서』(1917)과 『중등학교 조선어교과서』(1935)의 문법 사항을 비교하면서, 문체에 대하여 일본어의 'でございます'는 두 자료 모두 등장하나 이의 대응 한국어인 '습니다'체는 1935년 자료에서만 등장하고 있어, 한국어의 정중체가 1920년대 이후에 사용되었으며 보통체보다 뒤에 등장한 문체였음을 밝혔다.

- (16) ところが、或る年、突然 恐ろしい響がして、大地が陥り、土を飛ばし、灰を吹き、私供生物はと泥土の下に埋められてしまひました。(실업학교국어독본 권2:90)
어느날돌연히霹靂같은소리가나면서, 땅이 陷落하며, 돌과흙을들날니며, 煙氣와재를 썩어내어, 우리生物들은畢竟진흙에埋沒하얏습니다. (신편조선어독본 권3:14)

4.3.2 수동

수동의 경우 『고등국어독본』에서는 교육령별에 따른 형태의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고등조선어독본』에서는 제3차기에 들어 형태의 다양화가 나타나며, 이와 더불어 일본어의 수동이 한국어에서 능동으로 대응되는 경우도 증가하게 된다. ‘명사+하다’형태로 자주 등장하는데, 아래의 예(17)은 일본어 수동 ‘される’가 ‘하다’동사로 대응된 경우이며, 예(18)은 일본어 ‘する’동사가 한국어 ‘되다’로 대응된 경우이다. 이는 양국어에 있어서 수동과 ‘하다’동사 사이에 일련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17) 綿は、熱帶より溫帯にかけて、栽培せらるる植物にして、亞米利加合衆國は、現時
(고등국어독본 권2:3)
綿은熱帶로부터溫帯에까지栽培되는植物이니、亞米利加合衆國은現今
(고등조선어독본 권1:84)

유경민(2005:163-173)³⁰⁾는 ‘X하-’와 ‘X되-’ 및 ‘X시키-’의 형태가 능·피동, 주·사동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의미론적으로 부분 동의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통시적으로 한국어를 살펴보면, ‘하’위주의 능동표현이 현대 국어로 올수로 피동표현으로 바뀌는데 그 이유는 현대 이전의 자료에 한자 어휘가 많아 한문 원문에 피동이 의미를 가진 한자어가 있을 경우 그 한자어의 피동성을 번역하지 않고 한자어 그대로 가져와 ‘하’를 현토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즉 중세 국어에서의 ‘하’가 피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고, 이 의미역을 점차 ‘되’가 담당하게 된 것이며, 이 의미의 전이는 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엔가는 분명 혼재되어 쓰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고의 예들은 혼재된 시기가 1900년대 초기에도 진행 중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같은 ‘수동의 의미를 갖는 명사+하다’의 수동 표현은 예(17)과 같이 수동의 의미를 갖지 않는 한자 명사와 결합한 ‘하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다’ 수동이 ‘得하다(어휘적 수동) → 覆埋하다(수동의 의미를 갖는 한자어+하다) → 栽培하다(수동의 의미를 갖지 않는 한자어+하다)’와 같은 구조의 연속선에서 어휘 수동과 관련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수연(2008:54)³¹⁾에서 언급한 듯이 20세기 초기 당시 외래어의 영향으로 새로 생성된 ‘한자 명사+하다’와 이들 동사의 수동 ‘되다’의 과용에 따른 혼용도 작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아래의 예(18)과 같이 타동/사동의 의미를 갖는 ‘する’에 ‘하다’가 아닌 수동형 ‘되다’로 대응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30) 유경민(2005) pp.163-173

31) 유수연(2008:54)는 20세기 초 ‘하다’의 급증과 함께 ‘되다’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되다’ 수동의 과용은 형용사에까지 결합한 ‘되다’ 구문을 생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 (18) 農作ノ豊凶ハ直チニ一般人民ノ生活ニ影響スルコト大ナルヲ以テ、其ノ改良發達ヲ圖ルハ、實ニ今日ノ急務ナリ。(고등국어독본 권5:50)
 農作의 豊凶은 直히 一般人民의 生活에 影響됨이 多大함으로써、其改良發達을 圖함은 實로 今日の 急務이라。(고등조선어독본 권3:28)

4.3.3 부정

『고등국어독본』과 『고등조선어독본』의 경우 모두 제3차기에 다양한 이중부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현대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들도 등장하여 당시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1차기 일본어의 부정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명사+아니하다’라는 표현이 다용되었으나, 제3차기에 들어 ‘명사+-치 아니하다’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박상수(2011:87-88)³²⁾은 갑오경장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는 현대국어의 부정은 前시기와 동일하나 내포절 부정이 ‘사동 구조’나 이와 유사한 통사 구조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부정 요소가 내포절 부정(‘을/를 -하지 아니 -ㅎ-’)의 문법 기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하였다. 또한 ‘-을/를 아니ㅎ-’의 서술어 부정도 ‘-을/를 -하지 아니ㅎ-’의 내포절 부정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본고의 분석 자료에서도 제1차기에 ‘-을/를 아니 -ㅎ-’에서 제3차기에 ‘-을/를 -하지아니ㅎ-’로 이행하고 있어, 이 같은 변화가 1920년대에도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 (19) 泰西詩人の警句に言わずや、「休暇とは変りたる仕事の別名なり。」と。
 (실업학교국어독본 권3:76)
 泰西詩人の警句에 「休暇는 變換한 事務의 別名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신편조선어독본 권4:45)

또한 이 같은 단일부정의 변화는 아래의 예(20)과 같이 이중부정의 형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3차기에 다용된 ‘-지 아니치 못하다’의 경우³³⁾ ‘-지 아니하다’에 ‘-지 못하다’가 결합된 이중부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부정표현이 일본어의 직역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개화기 이후 한국어의 부정표현이 내포절 부정으로 변화하는 것 즉 선행부정에서 후행부정으로 변화하는 것은 후행부정만을 갖고 있는 일본어의 직역에 영향을 받아 한국어 부정의 변화 속도를 빠르게 하였을 것이 유추 가능하며, 이 같은 단일부정의 변화가 그대로 이중부정의 일본어 번역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³⁴⁾

- (20) 日常ノ生活ニ普通品モ、其ノ大部分ハ輸移入品ニ待タザルベカラズ。
 (신편국어독본 권8:51)

32) 박상수(2011) pp.87-88
 33) 단 1예를 제외한 모든 이중부정이 ‘-치아니치못하다’로 대응되고 있다.
 34) 김은애(2017:160-164)는 19세기 말에서 현재까지 소설류에 등장하는 이중부정 ‘なければならぬ’의 대역어를 살펴본 결과, 1910년 이전의 자료에서는 ‘-아한다’만이 등장하며,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의 자료에서 ‘-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중부정과 긍정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모두 등장하였고, 1945년 이후 이중부정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초 이중부정의 증가 원인으로 일본어의 직역을 들었다.

日常生活의 用品사가지라도、大部分은 輸移入品을 待치아니치못하게 되었도다

(신편조선어독본 권4:48)

5. 마치며

본고는 일제강점기 시 국어교과서인 『고등국어독본』과 조선어교과서인 『고등조선어독본』과의 대응 양상을 살펴 당시 일한 근대어의 특성 및 상관성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제1차기와 제3차기 문법 항목은 일본어의 경우 그다지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한국어의 경우 제3차에 들어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었다. 문체의 경우 ‘다’체는 제1차기에 대역글에서 소수 등장하기 시작하여 제3차기에 이르러 다수 사용되는 문체가 되었으며, 정중형 ‘습니다’의 경우도 제3차기의 대역글에서 등장하고 있었다.

수동의 경우 일본어 수동에 대하여 한국어 능동으로 대응되는 경우 중 ‘하다’동사로의 대응에 대하여 ‘得하다’와 같은 어휘 수동의 영향과 당시 대응되기 시작한 수동의 ‘되다’와 능동의 ‘하다’와의 혼용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의 경우 개화기 이후 한국어의 부정표현이 내포절 부정으로 변화하는 것 즉 선행 부정에서 후행부정으로 변화하는 것은 후행부정만을 갖고 있는 일본어의 직역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중부정 ‘-지아니치못하다’에도 일본어가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고등조선어독본』에서의 변화가 일본어와의 대역글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20세기 한국어의 변천사를 논함에 있어 일본어와의 관련성이 배제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본고의 결과가 조선어글의 원문으로 일본어 교과서류만을 삼고 있으며, 지면 상 여러 예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은 남으나, 일본어의 직역이라 일컬어지는 제1차와 제3차 교육령기 자료를 중심으로 양국어의 관련성을 살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던 대역 기사 그리고 모든 교육령별 문법 항목의 변천사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경민(2011) 「근대계몽기 한국어 학습서의 문법기술에 대한 고찰」 『한국문법교육학회』 제15차 전국학술대회 pp.25-35
- 김미형(1998) 「한국어 문체의 현대화 과정 연구 - 신문 문장을 중심으로-」 『語文學研究』 7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pp.123-147
- 김은애(2017) 「한국어 이중부정표현에 보이는 일본어의 영향」 『일본언어문화』 38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153-172
- 김윤주(2011) 「일제강점기 『조선어독본』과 『국어독본』의 비교 - 제1차 교육령기 보통학교 1·2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pp.137-166
- 남길임(2017) 「한국어부정구문연구를 위한 말뭉치언어학적 접근」 『한국어 의미학』 56 한국어의미학회 pp.135-159
- 남윤진(2011) 「소설자료를 통해 본 20세기 한국어의 부정문 사용 양상」 『한국어와 문화』 9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 문화연구소 pp.170-188
- 민현식(1994) 「開化期國語 文體에 대한 綜合的 研究 (1)」 『국어교육』 8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113-152
- 박기영(2016) 「개화기 일본간행 한국어 학습서 〈독학 한어대성 전〉에 대한 일고찰 - 한국어 학습서로서의 특징과 한

- 국어 자료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64 서울시립대학교서울학연구소 pp.121-154
- 박상수(2011) 「한국어 부정요소‘아니하’와‘아니’의 변화에대한 통시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58 언어과학회 pp.71-92
- 박화리(2014)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국어정책 중등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34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127-167
- 송민(1979) 「언어의 접촉과 간섭유형에 대하여 -현대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논문집』 10 성심여자대학교 pp.29-62
- 유경민(2005) 「‘X하-’와 ‘X되-’ 및 ‘X시키-’의 대응쌍의 연구」 『국어학』 46 국어학회 pp.147-182
- 유수연(2008) 『한일어 피동표현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8) 「일제강점기 일본인 조선어학습자를 위한 조선어교과서 연구」 『日本語教育』 86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59-75
- _____ (2019) 「『고등국어독본』과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에 나타난 일한 양국어의 대응 양상 및 특성 -기사의 내용과 일한양국어의 조사를 중심으로-」 『日本語教育』 88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69-83
- 윤재숙(2007) 「일본 근대교과서의 문법적 특징 연구」 『언어정보』 8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p.66-86
- 윤희숙(2002) 「한국어 번역문체에 미친 일본어 오역의 영향」 『일어일문학연구』 40 한국일어일문학회 pp.77-100
- 이강민(2006) 「開化期 日本の 韓國語學習書」 『일본학보』 67 한국일본학회 pp.65-80
- _____ (2015) 「개화기 다언어 학습서와 근대 한일 양국어」 『일본학보』 104 한국일본학회 pp.51-72
- 이오덕(2009) 『우리글바로쓰기1』 한길사 pp.1-408
- 이준환(2013) 「開化期 學部 편찬 讀本 자료의 언어 양상」 『語文論集』 41-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81-108
- 임상석(2010)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조선어급한문 교과서연구 시론」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pp.131-172
- _____ (2011) 「조선총독부 중등교육용 조선어급한문독본의 조선어 인식」 『한국어문학연구』 57 pp.185-208
- _____ (2014a) 「조선총독부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의 번역 양상: 총독부 국어독본과의 비교연구」 『비교문학』 62 한국비교문학회 pp.33-52
- _____ (2014b) 「국한문체의 형성과 번역 -근대 초기 문자의 교체와 식민지-」 『泮橋語文研究』 38 泮橋語文學會 pp.107-130
- 임유중(1998) 「개화기 국어의 부사에 관한 연구-〈개화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3 한민족문화학회 pp.143-176
- 정광(1995) 「일본어투 문장표현」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pp.87-107
- 정길남(2010)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시상에 관하여」 『韓國初等教育』 9-2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pp.53-66
- 주미선(2017) 「1910年代 國語(日本語)教科書についての一考察」 『일본언어문화』 39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103-115
- 허재영(2007) 「일제강점기 조선어 장려 정책과 한국어 교육」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pp.293-316
- _____ (2014) 「건국·과도기의 문법 교과서와 문법 교육의 특징」 『韓民族語文學』 66 한민족어문학회 pp.61-84

— 〈 要 旨 〉 —

『高等國語讀本』と『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で現れる日本語と韓国語の対応の様相及び特徴

本稿では日帝強占期に使用された国語教科書『高等國語讀本』と朝鮮語教科書『高等朝鮮語讀本』で現れる日本語と韓国語の対応の様相を通じて、20世紀初めにおける日韓両言語の文法項目の特徴と相関性を考察した。その結果、日本語の場合、第一次朝鮮教育令と第三次朝鮮教育令の間にはあまり変化が見られなかった。が、韓国語の場合、第三次教育令期に文法項目において多様な形態が現れた。文体の場合、'-da'体は第一次期の対訳記事で現われ、第三次期には多く用いられるようになった。また丁寧体も第三次期に現れ、時期による変化が見られた。受け身の場合、語彙的受け身と'되다'受け身がよく使用され、また受け身の意味を担う能動詞'하다'もよく現れた。これは'得き다'のような語彙的受け身の構造との関連性、そして当時多用された'하다'と'되다'の混同で起因したものであると思われる。否定の場合、開化期以降、韓国語の否定表現が内包節否定に変化すること、即ち先行否定から後行否定に変化することの背後には後行否定のみを持っている日本語が関連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これは二重否定表現にも繋っていて、韓国語の二重否定の多様化と使用頻度の増加に影響を与えたと思われる。結果的にこれらの変化が日本語を韓国語に翻訳した資料で現れていることは韓国語の史的変化に日本語資料は決して欠かせない資料であり、日本語との関連性を除くことはできないことを示唆する。

論文分野：統語論

キーワード：日帝強占期、高等國語讀本、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日本語と韓国語の対応の様相、文法項目

■ 유수연(兪樹延)

전남대학교 강사

tokyoforeign@hanmail.net

■ 投稿日	：	2019년	12월	31일
■ 審査開始	：	2020년	2월	5일
■ 審査完了	：	2020년	2월	19일
■ 掲載確定	：	2020년	2월	28일